

# 연중 제3주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 말라키 예언서

### 말라키

~~~~~

"나의 천사"라는 뜻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다시는 바빌론 유배를 겪지 않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열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던 사제들마저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자 그들에게 쓴 소리를 한다.

“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말라 2,2)

”

사제들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들이다.

###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

말라키 예언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예언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신명 6,8)

## 성구갑

가죽으로 만든 상자로,

몇몇 성경 본문(탈출 13,1-16; 신명 6,4-9; 11,18-21)을 담고 있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를 왼쪽 팔과 이마에 묶어 두었다.

“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민수 15,38-39)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이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

곧 하느님의 뜻(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했다.



##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마태 23,10)

”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계명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 하느님의 법을 알려주는 참된 스승이시다. 곧, 산상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실천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 유일하신 아버지 하느님

“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마태 12,50)

”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고 하시지만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바오로

“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테살 2,8)

”

바오로와 동료들은 말로 만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복음을 선포,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1테살 2,13)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은(사도 바오로)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며,

자신의 법을 따르는 이들은(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높인다.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며 살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라 불릴 것이다.